

진도군, 지역 청년창업 역량 돕는다

농수산업·요식업 등 청년 24명 참여 '청년 창업스쿨' 개강 실전 마케팅 등 실무 위주 교육...창업시 현판제작 등 지원

진도군이 지역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돕는 '청년 창업스쿨'을 최근 개강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점차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농수산업과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24명이 참여했다.

'청년 창업 스쿨'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육성을 위해 오는 5월 4일까지 10회 진행된다.

교육은 초기창업자들의 실패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험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농수산 가공식품 창업 프

로세스·트렌드 분석 ▲데이터 활용 전략 ▲창업 자금 조달 및 지원 사업

진도=조상용기자

활용 방안 ▲실전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금융·세무 지식 등 전문가를 초청해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 수료자에게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제공,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시 자격우대, 창업시 현판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열린 '청년 창업스쿨'에 63명이 참여해 4월 현재 5명이 창업해 성공했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진도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목표를 두고 청년 창업스쿨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 완도해조류박람회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관련 자유 주제...완도 관광 연계 순수 창작 동영상

(재)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장(신우철 군수)은 해조류를 주제로 개최되는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박람회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박람회와 축제가 취소되고 대면 홍보에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홍보 일환으로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통해 SNS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응모 자격은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자격 제한 없음),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관련 자유 주제로 박람회와 완도 관광 연계 스토리텔링, 공식 마스코트인 '해조,

미초'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해조류와 관련된 창의성이 있고 이목을 끌만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순수 창작 동영상이면 된다.

개인 또는 팀(4인 이내) 최대 2작품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온라인 접수이다.

심사는 작품의 우수성, 창의성, 효과성, 대중성, 홍보성을 고려하여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2팀을 선정한다.

수상자 결과 발표는 6월 14일 박람회 홈페이지와 SNS 공지 및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www.wando.go.kr) 및 박람회 홈페이지(wise2022.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이민혁기자

한국 전통발효차의 본향 '장흥 청태전' 품질평가회 개최

국내 차 분야 10명 전문가 장흥 떡차(돈차) 발전 도모

장흥군은 지난 20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장흥 청태전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농업유산지구 보전 관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제4회 장흥 전통차 청태전 품질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태전 품질평가회는 장흥 청태전이 한국 후발효차의 본향임을 앞세워 장흥 떡차(돈차)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날 품질평가회는 국내 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평가위원(위원장 추민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태전 품평은 2020년 제다된 청태전 중 주요 성분과 농약 안전성 등



이 검증된 제품만 접수받아 외형, 찻물 색, 향기, 맛, 우린 잎 등 관능평가로 이루어지며, 특급(90점 이상), 1급, 2급, 등의 판정을 받게 된다.

장흥군의 청태전 품질 인증과 상표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평가 점수로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올해 출품된 11개 다원은 모두 기준

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특히 천관다원(관산읍)의 경우 90점이 넘는 점수로 품질평가회 출품작 중 최고점을 받는 기업을 토론했다.

청태전 품질평가위원장을 맡은 추민아 위원은 "삼국시대 이후 꾸준히 명맥을 이어 온 청태전을 개발 초기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 낱말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며 "전통의 청태전과 함께 소비자와 한결 더 친밀한 모습의 청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흥군은 앞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 발효차 시장을 겨냥한 한국의 후발효차 대표자로 자리매김하고자 청태전에 보이차와 같은 속성발효기법 도입 가능 여부를 시험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수곡이나 돌배, 계피 등을 활용한 블렌딩 차 개발과 장흥 전통차-Tearoad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고추 '칼라병' 지금부터 예방하세요"

총채벌레가 옮기는 TSWV 바이러스, 초기 방제해야 효과 높아

강진군이 고추에서 치명적인 병해 중 하나인 '칼라병' 예방지도에 나섰다.

'칼라병'은 총채벌레가 옮기는 토마토만점위조(TSWV)바이러스를 말하며 감염될 경우 고추 과실과 잎 표면에 얼룩덜룩한 자국이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병한 식물체는 생육이 급격히 억제되고, 고추 과실은 수확이 어려워 고추 농가에게 골치 아픈 병충의 하나다.

'칼라병'은 한번 발병하게 되면 멈추게 하거나 회복시키는 방법이 거의 없고 다른 정상 포기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초기 총채벌레의 방제가 칼라병 예방의 성과를 좌우하는데 총채벌레의 특성 중 하나가 잎보다는 꽃 속을 좋아해서 방제약을 처리해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러 해 고추밭을 경작하게 되면 해충들이 약제에 대한 내성을 가짐에 따라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우선 바이러스 내병계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약제 방제시 꼼꼼하게 처리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영농철 일손부족 해소 총력 지원

읍면 인력상황실 운영, 농촌일손돕기도 앞당겨 추진

해남군은 고구마 정식과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적인 농번기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촌일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이번달부터 군과 읍면, 농협 등에 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촌일자리 참여자(자원봉사자)를 모집·알선하고

있다. 또한 육천농협 농촌인력증가센터를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맞춤형 농작업 인력을 지원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작업명, 작업날짜, 소요인원, 농작업 위치, 숙식 등 편의제공 여부, 하루 일당 등을 결정해 신청하면 되고, 농촌일지리를 원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균형농정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 육천

농협인력증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공무원·공공기관·사회단체회원들이 참여하는 농번기 농촌일손돕기를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4월부터 시작하는 한편 범군민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해 다소나마 농가의 인력난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